

#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국내 12만대 리콜

## 환경부에 판매 현황·시정계획 제출...내주 리콜 계획 공지

국내 운전자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 차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 국내에서 조만간 최대 12만대에 대해 리콜이 이뤄질 전망이다.

1일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전날 환경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본사의 기술적인 해결책 개발과 테스트가 끝나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환경부에 국내 판매 현황과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시정 조치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차량에 대해 리콜 등을 통해 보상한다는 의미다.

앞서 폭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100만대에 대해 리콜을 할 뜻을 밝혔다. 폭스바겐 그룹 본사는 오는 7일까지 독일 당국에 사태 수습 방안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뒤 차량 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결합 차량 차주가 정비

소를 찾아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종 언어로 웹사이트를 개설해 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내주께 고객에게 구체적인 리콜 계획이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이 12만1038대 팔렸다고 밝혔다. 모두 '유로 5' 환경기준에 따른 차로 유로 5 기준이 도입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수치다.

이들 모두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세부 분류 과정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다.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폭스바겐 브랜드는 문제의 차량이 골프와 제타, 비틀, 파사,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투란, 사란 등 10개 차종 9만2247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 브랜드는 A4, A5, A6, Q3, Q5 등 5개 차종 2만8791대로 집계됐다.

한편 폭스바겐 경유 차량은 국내 검사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 A4>

에도 올랐다.

환경부는 1일 환경부 산하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시행했다.

첫 검측 차량은 '유로 6' 환경기준에 따

## '폭스바겐'으로 통일합니다

광주일보는 최근 혼용되고 있는 '폭스바겐'과 '폴크스바겐'의 명칭을 독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폭스바겐으로 통일해 사용합니다. 현행 표기법상 독일 자동차 브랜드 명칭은 '폴크스바겐'이며, 국내 법 인명은 '폭스바겐코리아'입니다.

라 제작된 아우디 A3 차량으로 지난해부터 국내에 판매된 신차다.

나머지 조사 대상인 골프, 제타, 비틀 등 유로 5·6 환경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7종은 2일부터 차례로 검사대에 오른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 여부와 제작사 임의 장치 설정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검사 대상 차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는 제조사에 인증 취소나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 올해 금융사기 피해액 1946억원

## 피싱 61.8%·대출 38.2%

남성은 대출사기, 여성은 피싱사기 피해가 많고 대출사기는 40대 남성, 피싱사기는 30대 여성이 많이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사기 피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시간대별로 고르게 나타난 가운데 오후 3시대에 정점을 이뤘다. 수요일에 전체 피해의 20%가 발생했지만 휴일(토·일) 비중도 6%가량 됐다.

올 들어 8월까지 금융사기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300명을 넘었다.

1일 금융감독원이 1~8월 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4만4619건의 피해 가운데 피싱사기 1만8263건(40.9%), 대출사기 2만6356건(59.1%)이었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피싱사기가 1202억원(61.8%), 대출사기가 744억원(38.2%) 등 모두 1946억원이다. /연합뉴스

전수로는 대출사기가, 피해액으로는 피싱사기가 더 많았다.

피해자의 성별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이 비슷했으나 피해액으로는 여성이 57.4%를 차지해 다소 많았다.

사기 유형별로는 피싱사기에는 여성이 전체 건수의 61.7%를 차지해 남성보다 피해가 많았고 대출사기의 경우 남성이 58.1%로 여성보다 많았다.

성별·연령대별로는 40대 남성이 남성 피해자의 28.9%, 30대 여성이 여성 피해자의 29.1%를 차지해 가장 취약했다.

특히 30대 여성이 피싱 여성 피해자의 32.9%를, 40대 남성이 대출사기 남성 피해자의 32.3%를 차지했다.

피해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고르게 나타났으나 오후 3시대가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의 영업시간 외에도 전체 건수의 25.7%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 연말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 은행권 대출태도지수 크게 하락

올 4분기(10~12월)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일 한국은행이 국내 17개 금융사의 여신업무 총괄책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4분기 국내 은행의 가계 대상 주택자금 대출태도지수(전망치)는 -3으로, 전분기(6)와 비교해 9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음의 값으로 내려간 것은 2012년 3분기(-6) 이후 3년 만이다.

대출태도지수가 음(-)이면 대출을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기관 수가 완화하겠다고 응답한 기관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양(+))으로 나타나면 그 반대의 경우

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책의 적용시점은 내년부터지만 제도 변경 전 주택담보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여신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은행권의 가계 주택자금 대출태도는 2분기(16)의 완화적 기조가 3분기(6) 들어 크게 누그러진 상황이다.

신용대출 등 은행권의 가계 일반자금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도 4분기 -3으로 조사돼 주택대출과 마찬가지로 다소 강화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 '32살 스낵' 꼬깔콘 23억 봉지 팔렸다

'32살' 장수스낵 꼬깔콘이 누적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롯데제과는 1일 "꼬깔콘이 1983년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 1조 86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수로 환산하면 23억 봉지에 달하고 일별로 늘어놓으면 지구 둘레를 15바퀴 돌 수 있는 수준이다.

롯데제과 스낵 중에서 누적 매출 1조원을 넘은 것은 꼬깔콘이 처음이다. 동종업계에서는 농심 새우깡 등이 누적 매

출 1조원 돌파 기록을 갖고 있다.

꼬깔콘은 출시 첫해 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초기부터 인기가 좋았다. 올해는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롯데제과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 전통시장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누리세요

## 광주·전남 7곳 참여

광주 무등시장과 목포 자유시장 등 광주·전남 전통시장 7곳을 비롯해 전국의 전통시장 200곳이 내수진작을 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한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기간에 고객들은 전통시장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각 시장별로 진행되는 이벤트 등에 참여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부 상인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청은 1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역시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시장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전통시장 공식 블로그 '북적북적 시장이야기'(blog.naver.com/marketagenc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무등시장, 봉선시장, 남광주시장, 중앙로상점가, 말바우시장, 양동복개상가 등 6곳이 참여하며 전남에서는 목포자유시장만이 동참한다. 이 기간 무등시장에서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10% 세일을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나눠준다. 또 봉선시장 참여 점포에서 10% 할인하고 경품을 나눠준다. 중



첫날부터 북세동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첫날인 1일 아웃도어대전이 열린 롯데백화점광주점 지하 1층에는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롯데백화점 제공>

장로상점가의 참여 상가에서도 10~30% 깎아주거나 온누리상품권과 경품을 분다.

목포자유시장 참여 점포에서는 3만원 이상 상품 구매시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준다.

하지만 참여 시장의 전체 점포가 이 행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소비자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도 나오고 있다. 어느 상점이 할인을 하는지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고, 일부 상인들은 이에 행사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방수! 직접 칠해 주세요**

● 시외 -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덕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